

## 총선 D-4개월 호남 정치 지형도... '수성이나 탈환이나'

출판기념회 개최·예비후보 등록 준비 '분주'

대안신당 등 야권, 지지층 결집속 창당 '울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총선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압승을 한 광주·전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지형도가 완전히 바뀐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텃밭 탈환에 나선 가운데 '비(非)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수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후보들은 앞다투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고, 대안신당 등 야권 후보들은 '제3지대 결집' 등 창당을 목표로 지지층 결집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씩씩이' 목표, 지방의 원 일탈행위로 민심 이탈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에 주저 앉으며 광주·전남 18개 의석중 한 석을 차지한 데 그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는 '씩씩이'를 목표로 석권에 나선다. 우선 당규에 따라 원내외를 막론하고 지난 13일 광주전남 지역 위원장들은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민주당 출마 입지자들은 지난달부터 일지감지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70%에 육박하는 높은



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내 경선 통과가 본선 당락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경선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 정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면서 선거일까지 지지율이 이어질지는 알수 없는 형국이다.



◇옛 국민의당, 제3지대 신당에서 의기투합 여부 관심

야당에서는 김명진 대안신당(가칭) 광주 서구갑 예비위원장의 지난 11일 총선 출마선언이 유일하다. 국민의당 분당 이후 뿔뿔이 흩어진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결집해 신당을 만들지 관심이 쏠린다.

대안신당은 내년 1월12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창당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와 결별하고 가칭 '새로운보수당'을 결성기로 합의에 따라 바른미래당내 호남계 의원들의 제3지대 신당 합류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옛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이 만들어지면 광주·전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고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항상 임기중반이나 후반에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필연적"이라며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완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

## 한국노총전남본부 건강한 일터만들기 워크숍 개최

노사민정 관계자 120명 참석 화순 도곡 원네스 리조트



한국노총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한 2019년 건강한 일터 만들기 워크숍이 13일 화순 도곡 원네스리조트 7층 대연회장에서 전남지역 노사민정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노동조합 역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더

노동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는 가라는 주제로 오늘의 워크숍이 열렸다"면서 "눈앞의 이해타산만을 따지는 노동운동이 아닌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사회의 질적 전환을 깊이 고민하는 한국노총 전남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조기홍 본부장(보건학박사)은 "노동자 안전 보건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

전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면서 "산업재해는 한사람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 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산업현장과 일장에서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노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영우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 대표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과 대응이란 주제 강의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직장내에서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5개지역 목표, 광양, 순천, 여수, 본부권(기타 시군)이 지역별 의견 개진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봉우 기자

## 전남도, 내년 경제산업분야 국비 최대...46건 1290억원

'블루 이코노미' 실현 등 신성장산업 파란불

전남도는 2020년 정부예산에 지역성장을 견인할 경제산업 분야 총 46건 1290억원의 신규 및 계속 사업이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경제산업 분야 예산 역대 최대로, 총 사업비는 1조1928억원에 달한다. 대표적 미래 먹거리산업인 e-모빌리티와 드론 분야에서 신규 사업으로 소형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10억원, 융합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195억원,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실증 확산사업 2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53억원,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 53억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돼 미래형 이동·운송 관련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후방 관련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 백신 제품화 기

술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142억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돼 차세대 백신, 천연물 신약개발을 선도할 거점 마련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남도가 미래 글로벌 에너지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혁신산업 육성사업에 55억원, 초대형 풍력 인증·실증 단지 구축사업 53억원 등이 추가됐다. 지능형 저임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 60억원 등도 계속사업으로 반영돼 에너지 분야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주도하는 에너지혁신성장 거점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주력산업인 조선분야는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 47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82억

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건조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16억원 등이 계속 사업으로 반영돼 업종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계기가 마련됐다. 철강·석유화학 산업에는 수송기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사업 180억원,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및 실증기반 조성사업 190억원 등의 국비가 투입돼 산업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남지역 소재·부품기업의 자립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 190억원, 전남 소재산업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 조성 200억원, 첨단 소재 융합부품 상용화 기반 강화 106억원 등이 신규로 확보돼 전통 주력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꾀하게 됐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경제산업 분야 국비 확보를 통해 마련한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블루 이코노미' 실현과 전남 산업의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